

이미 오를대로 오른 기름값 ‘유류세 인하’ 약발 먹힐까

정부 오늘부터 휘발유값 ㄹ 당 82원씩 내리

주유소 반영 어렵고·국제유가 상승엔 ‘미미’

정부가 물가대책의 하나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했지만 소비자들 휘발유값 인하를 기대만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추이와 유류물량 배출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린 ㄹ 당 82원(휘발유 기준)의 세금이 곧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가격을 내리더라도 국제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효과가 얼마 가지못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 출고분부터 유류세 탄력세율 제도를 시행해 세금 부담분을 줄여주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이

각각 ㄹ 당 82원, 58원씩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 가격을 철저히 감시해 세금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정유사들이 국내 제품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 등 원유가격이 아니라 국제 유류제품 시장가격이다. 또 회사마다 가격정책은 다르지만 국제가격은 1~3주, 평균 2주 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따라서 3월 둘째주 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같은 기간의 국제 제품가격이 아닌 2월 셋째주와 넷째주의 국제가격 흐름을 따르게 된다.

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 시

장의 국제 휘발유 가격(옥탄가 92 기준)은 2월 셋째주 배럴당 106.84 달러로 전주보다 5 달러 이상 올랐고 넷째주에는 109.57 달러로 2.73 달러 상승했다. 경유(유황 0.05% 기준) 역시 같은 기간 배럴당 116.67달러와 119.88달러로 상승폭 선을 그렸다.

10일 시행되는 탄력세율 제도는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은 확실하지만 세금 인하에 따른 낙폭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제가격이 유류세 인하 ‘약발’ 좌우=유류세 인하조치는 정유사들의 10일 출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은 기존 물량이 소진된 다음에나 인하된 가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초부터 탄력세율이 적용된 등유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 전 ㄹ 당 1천100원에 근접했던 가격이 정부가 깎아낸 세 금(ㄹ 당 115원선)에 가깝게 떨어지다가 3주 가량 걸렸다. 물론 휘발유와 경유는 등유보다 물량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사정은 좀 다르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일선 주유소들은 10일부터 바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받아 팔기 위해 이미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며 “옆 주유소가 싸게 파는 데 기존 물량 때문에 비싼 가격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도높은 감시를 통해 기름값이 오는 10일부터 세금 인하폭까지 내리더라도 이런 ‘약발’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가능하기 힘들다.

석유업계의 주장대로라면 국내 휘발유·경유 소매가는 국제 제품시장의 동향에 완전히 맡겨져 있는데 3월 셋째주의 가격에 영향을 줄 3월 첫째주 국제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배럴당 107.93달러로 내렸지만 경유는 121.42달러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인하된 가격이 오레가기를 희망하겠지만 상황은 그리 쉽지 않다”며 “석유업계도 첫 인하 이후 국제 석유가격의 오름세로 제품가격이 반등할 경우 여론이 나빠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료출신 줄줄이 ‘기업형’ 주총 맞아 사외이사 진출

관 인사들이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기업 사외이사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법조계와 재정경제부, 국제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관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상장사들의 사외이사로 잇따라 내정되고 있다.

GS건설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김종민(61) 전 검찰총장을 3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LG텔레콤은 18일 주주총회에서 이동걸(54) 전 금감위 부위원장 임기 3년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14일 주총에서 대구 지방국제법정을 지난 최명래 전 재경부 국제심판위원장을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키로 했다.

부산은행은 20일 주총에서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출신으로 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김우석(61)씨를 임기 2년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키로 했다. 김우석 전 사장은 또 21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3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될 전망이다.

대성홀딩스는 21일 주총에서 심재룡(64)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키로 했다.

증시 ‘체력’ 고갈?

수급·거래동향 지표 지속 악화 고객예탁금 8조원대 하락 위험

증시의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과 거래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향후 증시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증시 수급 및 거래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이달 들어서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코스피지수가 1,400대였던 지난해 초 수준으로 후퇴하는 양상이다.

증시 수급의 대표적인 지표로 고객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맡겨놓은 돈을 의미하는 고객 예탁금은 7일 현재 9조460억원까지 줄어 8조원대까지 떨어질 위험에 놓였다. 이는 지난해 2월 고객 예탁금이 9조원대로 올라선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지난해 7월 말 예탁금이 14조5천559원까지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5조원 이상 급감한 수치이다.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신용융자 잔액도 7일 현재 3조5천390억원으로 집계돼 6개월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달 들어 일평균 거래량은 2억8천739만주로 코스피지수가 1,300~1,400대에 머물렀던 지난해 3월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6월(일평균 5억198만주)의 57% 수준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식료품값 급등 물가부담 커져 저소득층 불안심리 확산

최근 식료품 가격급등으로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체감경이 악화되는데 경제불안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9일 ‘저소득층 물가 부담 커진다’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국제곡물 가격이 빠르게 상승, 서민들의 기초생활과 직결된 밀가루, 가공식품 등의 가격이 오르는 등 식료품의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와 개별상품의 가격을 감안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추정해 결과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0.4%를 기록하면서 고소득층(0.3%)을 앞지르고 있어 저소득층 물가부담이

가중되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2월에 이뤄진 라면 등 식료품 가격인상이 2월의 소비자물가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저소득층의 물가상승 속도는 고소득층에 비해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덧붙였다.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세인 이유는 급증하고 있는 곡물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수요와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를 위한 수요의 증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 가뭄과 한파 등 기상악화로 인한 작황부진이 겹치는데다 곡물수출국들의 수출통제, 중국의 식료품 가격폭등도 식료품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현대차 인도 생산공장

지난 9일 준공 한달을 맞은 현대자동차 인도공장 생산라인에서 인도인 현지 근로자들이 소형차를 조립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세 재분배효과 낮다”

美·英보다 낮아... 과세자 늘려야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도가 매우 크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누진도를 낮추더라도 과세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계간 세무사’에 실린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 구조의 이해’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상위 소득자 10.4%가 전체 조세세의 90.6%를 납부했고, 근로소득세도 상위 소득자 10.2%가 75.7%의 세금을 낼 정도로 누진도가 높았다. 이처럼 누진도가 높으면 그만큼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 소득세제의 재분배 효과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소득세의 누진도를 다소 낮추더라도 과세자 비율을 높이고 중간 소득 계층의 세부담 비중을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주택대출금리 하락세 주춤

물가상승 부담 향후 정책금리 동결 예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세가 주춤해졌다.

그동안 금리 하락폭이 급격했던 데다 물가상승 부담으로 한동안 정책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단기간에 대출금리 급락세가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주 초 기업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연 6.10~7.74%로 지난주초와 동일하다. 지난 1월28일 이후 7주만에 변동금리의 하락세가 중단됐다.

외환은행이 지난주보다 0.11%포인트 인하한 6.24~7.42%로 고시하면서 1월 21일 이후 두달 동안 대출 최저금리의 하락폭이 0.86%포인트에 달했지만 대부분 은행은 소폭인하에 그쳤다.

하나은행은 이번주 초 변동금리형 대출금리를 6.47~7.17%로 고시해 대출금리 하락폭이 지난달 21일 대출금리 하락세가 시작된 이후 최저 수준인 0.01%포인트에 불과했다. 국민은행은 5.83~7.43%로 0.0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0.02%포인트 내린 6.07~7.57%와 6.17~7.57%로 고시했다.

일부 은행은 고정금리형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국민은행은 이번주 초 고정금리형 대출금리를 6.13~7.73%로 지난주 초에 비해 0.05%포인트 높였다.

우리은행은 고정금리형 대출금리가 6.48~7.98%로 4주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SC제일은행도 최저금리가 6.90%로 4주째 고정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외자 지원 ‘금물살’ 타나

금융위원장 업무 시작... 대대적 실태조사 나서

전광우 금융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금융 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금물살을 타게 됐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시장친화적으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연체자는 일부 탕감하되 원금은 모두 갚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과장급 인사가 조만간 마무리되는 대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반(TF)을 구성할 예

정이다.

우선 작업반은 빠르면 이달 중에 700만 금융소외자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연체자는 물론 대부업체 이용자도 포함하는 대규모 조사로, 그 결과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도 달라진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자, 소득이 없는 청년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설정해 연체이자와 이자율의 감면폭을 달리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KDI ‘체감경기 둔화 지속’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최근 우리 경제는 견실한 생산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높은 물가상승세 등으로 체감경기(실질구매력 상승)는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08년 3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1월 중 산업생산은 11.8%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서비스업활동지수도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이 다소 개선돼 7.7% 확대됐지만 채고 증가세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재고의 높은 증가세가 앞으로 생산 증가세가 추가해 확대되는 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2050년 건보료 지금의 4배

GDP의 13%까지 상승... 국민연금도 적자

지금 태어나는 아기가들이 사회적으로 한창 활동할 시기인 2050년에는 건강보험료 급여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까지 올라가 현재의 3.5~4배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예측치인 GDP 6~7%의 두 배 수준이고 건강보험 외에 국민연금도 2044년에는 적자로 돌아서는 데 이어 2060년에는 재정도 바닥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자녀 세대는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주요 경제활동 계층의 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의 김준민·김우철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부담 장기재정 모형 구축’ 보고서에서 빨라지는 고령화 추세와 늘어나는 평균수명 등을 감안한 새 인구구조를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철근·고철 사재기 단속 처벌

오는 11일부터 고철과 철근이 매점매석행위 품목으로 고시돼 생산 및 유통업체, 건설업체, 재활용업체 등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재고를 보유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철근가격이 급등하고 수급이 불안해진 것은 고철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외부적 요인 외에 유통업체나 건설업체 등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에 기인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철과 철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7개 전기로업체 등 생산업체와 250개 유통업체는 단속시점 직전 30일간 평균재고량이 전년 동기기간 평균재고량에 비해 10% 초과한 경우, 건설업체는 직전 18일 총사량량 초과해서 보유한 경우, 3천여개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단속시점 직전 15일간 평균재고량이 전년 동기기간 재고량에 비해 10% 초과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275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4 19 20 35 38 40	26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0,044,066,900	1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88,105,850	19
3	5개 숫자 일치 1,689,215	991
4	4개 숫자 일치 64,813	51,657
5	3개 숫자 일치 5,000	884,959

팝콘복권 (제98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1주 206971
2	1억	4주 384647
		2주 551025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14167
5	50만	각조 1954
		각조 39
6	2천	각조 98
		각조 79
		각조 4
7	1천	각조 1
		각조 6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신기업	문서작성 및 서류정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3/10	062-511-1125
정재인기능공예학교	T/M 여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0	010-6838-1501
(주)에당기업	시공 및 설계, CAD, 그래픽디자인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3/12	062-682-6722
ok웨딩클럽 광주센터	SK OK웨딩클럽 웨딩플래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2	062-223-0805
금충월드	시설과장/설비, 전기, 소방등 관련업무경력직	초대졸/경력1년	2200~2400	03/12	062-350-8022
비엔컴프클럽	매니저/인포데스크/트레이너/댄스 및 요가 강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3	062-432-9042
ECC서광주	경리업무 가능성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3	062-380-5007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사무보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3	062-530-1923
(주)유진시스템	[영상,음향,CCTV]기술지원팀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2년	2000~2200	03/13	062-383-1108
합흥	물류재고관리 및 인출고관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13	062-375-5998
흥국생명화재저축센터	흥국생명화재 본사직영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3/14	062-410-1423
유경정밀(주)	사출금형조립/MCT/밀링/화물차운전(5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5	062-973-0870
(주)광주삼정기업	삼성전자 진공청소기 조립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5	062-943-2258
엔카네트웍스(주)	[SK엔카] 신입 및 경력 차량평가사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3/15	062-528-265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